

# 전북 “백승호 영입 작업 중단”…수원 삼성 “사과가 먼저”

**바르셀로나 유소년팀 입단 전 수원 삼성과 입단 합의 후 금전적 지원 백승권 단장 “애초 몰랐던 일…알았다면 영입절차 밟지 않았을 것” 삼성 측 “K리그 유소년 정책 근간 흔들는 일…영입 문제는 그 다음”**

프로축구 K리그 ‘다펀딩 챔피언’ 전북 현대가 스페인 명문 FC바르셀로나 출신 미드필더 백승호(24)의 영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유소년 시절 백승호를 지원해온 수원 삼성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이 따른 조치다.

전북 백승권 단장은 22일 뉴시스의 통화에서 “백승호 영입 작업을 중단한다”면서 “수원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먼저다. 당사자들끼리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전북은 최근 한국프로축구연맹을 통해 스페인축구협회에 백승호의 로컬 룰 적용 여부를 문의한 뒤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영입을 본격 추

진했다. 백승호는 2016년 1월 바르셀로나와 프로 계약을 맺어 올해 1월 ‘5년 룰’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전북 김상식 감독도 백승호를 두고 “전북 스타일”이라고 밝히며 적극적인 영입 의사를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전북의 어드바이저로 선임된 한국 축구 전설 박지성 위원은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백승호가 바르셀로나 유소년팀 입단 전 수원 삼성과 입단 합의를 하고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 삼성 측에 따르면 백승호는 지난 2010년 바르셀로나 유학 전 매탄

고 진학 조건으로 수원으로부터 3년간 매년 1억원씩 총 3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백승호가 바르셀로나 유소년팀과 5년 계약을 맺으면서 매달 6천만원이 지급되는 ‘K리그 복귀 시 무조건 수원에 입단한다’는 2차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전북은 지난 19일 긴급회의를 열고 백승호 영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전북 백 단장은 “K리그 근간을 흔들 이유는 없다. 애초 몰랐던 일이라 진행했지만, 알았다면 영입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원과 리그 경

쟁자지만, 동시에 동업자이기도 하다.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순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원과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때 다시 영입을 고려할 생각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영입이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전북이 백승호 영입에 손을 떼면서 열리는 수원 삼성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제 백승호가 K리그로 돌아오려면 수원으로부터 선수 포기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거나, 2차 합의서대로 수원 삼성에 입단해야 한다.

수원 삼성 구단 관계자는 “전북이 백승호와 접촉했다 소식을 듣고 우리는 연락을 기다렸다. 하지만 우선 협상을 무시한 채 전북과 계약을 추진할지는 몰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돈이 문제가 아니다. K리그 유소년 정책의 근간을 흔들는 일이다. 한 해 유소년에만 20억원을 쓴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누가 어린 선수



육성에 투자하겠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수원 삼성은 조만간 백승호의 부친을 만날 계획이다. 백승호는 지난 주말 귀국해 자가 격리 중이다.

백승호 측과 법적 분쟁까지 준비했던 수원 삼성은 사과를 받는 게 우선

이라고 했다. 전북이 손을 뗐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원 삼성이 백승호 영입을 원하는 건 아니다.

수원 측은 “구단과 신뢰를 저버린 선수를 영입하는 건 그다음 문제다. 지금은 백승호 측의 사과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KIA 이창진 “난 주전이 아냐…어느 위치든 거기에 맞춰 최선”

### 지난해 23경기 출전 타율 0.330…1번 타자로만 거둔 성적



이창진은 “이제는 아픈 곳이 없다. 하나 걸리는 것 없다. 스트레칭 중점으로 건강한 몸으로 훈련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썼다. 작년 부상으로 경기를 못 뛰다보니 마음이 아팠다. 몸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구나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KIA 외야진은 격전지다. 프레스턴 터커가 1루수로 변신하며 기회의 문이 더 열렸다.

작년 좌익수를 맡았던 나지완, 후반기 부동의 리드오프로 맹활약을 펼친 최원준이 있다. 이창진이 부상에서 복귀해 주전을 노리고 있다. 김호령도 타격폼을 바꾸며 중견수 자리를 노리고 있다. 한 명은 벤치에 앉아야 한다.

이창진은 “내가 잘하는 수비는 아니다. 내야에서 외야로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항상 신경쓴다. 호령이와 같은 자리인데 배우고 많이 물어보기도 한다. 남들에게 어려운 타구도 쉽게 잡더라. 타격 포인트, 투구의 궤적을 통해 스타트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진은 작년 1번타자로 맹활약을 펼쳤다. 올해도 오른손 리드오프 후보이다. 그러나 이창진은 욕심을 내지 않았다. “1번은 잘하는 선수가 치는게 맞다. 타순이 중요하게 아니다. 어디 타선인데 자기 몫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선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주전이 아니라는 못 박았다. “난 주전이 아니다. 어느 위치든 주어진다면 거기에 맞춰 최선을 다하겠다. 팀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다. 목표포 잡은 성적 수치는 없다. 최대한 아프지 않고 경기수에 많이 나가는 것이 목표이다”고 겸손함을 보였다. 말은 그렇지만 눈빛은 자신감이 넘쳤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수들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 작년보다 훨씬 좋은 성적 낼 것이다. 분위기도 좋고 올해는 더 빠르고 더 화려한 타선이 될 것 같다. 단타를 2루타로 만들 수 있다. 나도 뛰겠다. 허벅지는 상태 너무 좋다. 부상 재발의 두려움은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 “양현종, 불펜으로 개막 로스터 진입”

### MLB닷컴 예상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이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가 예상한 개막 로스터에 이름을 올렸다.

MLB닷컴은 22일(한국시간) 텍사스의 26인 개막 로스터를 전망했다.

지난 13일 텍사스와 스피릿 계약을 맺은 양현종도 이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양현종은 선발이 아닌 불펜 투수로 분류됐다.

2020시즌 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양현종은 텍사스와 계약하며 미국 진출의 꿈에 한 걸음 다가섰다.

다만 양현종은 메이저리그와 마이네리그 소속에 따라 조건을 달리하는 스피릿 계약을 맺어 빅리그 진입을 위해선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 빅리그 진입시에는 최대 185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메이저리그 스프링캠프에 초청된

수 신분으로 참가하는 양현종은 시범경기까지 자신의 기량을 펼쳐 보여야 한다.

MLB닷컴은 양현종과 함께 호세 레클레르, 조나단 에르난데스, 조엘리 로드리게스 등 8명을 구원진으로 예상했다.


텍사스 선발 투수로는 카일 김슨, 데인 더닝, 마이클 폴터네비치, 아리하라 고헤이, 콜비 알라르를 점쳤다.

한편, 양현종은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조만간 텍사스의 스프링캠프에 합류해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뉴시스

## ‘여자농구 최하위’ BNK 유영주 감독 사퇴

### “아쉬운 경기 결과 최종”



생명(네이밍 스폰서 OK저축은행)을 인수해 창당한 BNK의 초대 감독으로 선임됐다. 여자프로농구에서 여성이 정식 사령탑을 맡은 것은 2012년 KDB생명 이육자 감독 이후 유 감독이 두 번째였다.

BNK는 유 감독을 비롯해 최유아, 양지희, 변연하를 코치로 영입, 역대 최초로 여성으로만 감독, 코치를 구성했다.

BNK는 2019~2020시즌 10승 17패로 5위에 머물렀고, 2020~2021시즌에는 5승 25패로 최하위에 그쳤다.

특히 지난 21일 아산 우리은행과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역대 한 경기 최소 득점(29점)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쓰며 29-55로 완패, 9연패에 빠지며 시즌을 끝냈다.

2019년 감독 선임 당시 유 감독은 구단과 2+1년 계약을 맺었으나 2년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다.

유 감독은 “장단 이후 BNK를 성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경기 결과를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BNK는 3월 중에 새 사령탑과 코치진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구단 측은 “프로와 아마, 전현직 지도자를 망라해 팀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책임자를 선임 감독으로 선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감독은 2019년 4월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위탁 운영하던 KDB

여자프로농구 부산 BNK의 초대 사령탑인 유영주(49) 감독이 2년 만에 자리에 물러났다.

BNK 구단은 22일 “유 감독이 2020~2021시즌 정규리그 종료 직후 정초고 단장과의 면담에서 구단의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사의를 표명했고, 구단도 유 감독의 뜻을 존중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BNK는 지난 21일 유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렀고, 구단은 다음 날인 이날 유 감독의 사퇴를 발표했다. 유 감독을 비롯해 코치진도 동반 사퇴한다.

유 감독은 2019년 4월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위탁 운영하던 KDB

## 권순우, 이탈리아 비엘라 챌린저 우승

### 개인 통산 3번째



권순우(24·당진시청·97위)가 남자 프로테니스(ATP) 비엘라 챌린저 2차 대회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권순우는 2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비엘라에서 열린 대회 단식 결승에서 로렌조 무세티(이탈리아·122위)를 2-0(6-2, 6-3)으로 물리쳤다.

그가 챌린저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19년 3월 요코하마 게이오 챌린저, 같은 해 5월 서울오픈 챌린저에 이어 개인 통산 3번째다.

챌린저 대회는 투어보다 한 단계 낮

은 대회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랭킹 포인트 125점을 획득한 권순우는 22일 발표되는 세계랭킹에서 81위 정도에 자리할 전망이다.

권순우는 싱가포르로 이동해 ATP 투어 싱가포르오픈에 출전한다. 권순우는 싱가포르오픈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타이전 파이엇카우스키(미국·217위)와 맞붙는다.

권순우는 지난해 US오픈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파이엇카우스키를 3-1(3-6, 7-6(7-4), 6-1, 6-2)로 물리친 바 있다.

뉴시스

## 커쇼, 은퇴 가능성 ‘일축’

### “아직 몇 년 더 뛴 수 있다”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의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33)가 은퇴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커쇼는 22일(한국시간) 현지 언론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아직 선수 생활을 끝낼 생각이 없다. 이제 겨우 33세고, 몇 년 더 뛴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2021시즌을 마친 뒤 자유계약선수(FA)가 되는 커쇼는 이달 중순 LA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커쇼가 은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커쇼는 이날 인터뷰에서 “잘 모르겠다”고 한 것은 현역 연장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경기를 뛰는 것이 즐겁고, 현재 몸 상태도 무척 좋다”며 은퇴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2008년 다저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한 뒤 한 팀에서만 뛴 커쇼는 2018시즌을 마친 뒤 다저스와 3년 9300만달러에 재계약했다. 2021 시즌을 마친 뒤 다저스와 계약이 만료되는 커쇼는 다저스에 남을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커쇼는 “다저스를 사랑하고, 이 팀에 있는 것이 좋다. 다저스에 대한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 이 팀에서 우승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은 것은 행운이었고, 마침내 월드시리즈 우승도 차지했다”면서 “2021시즌 후 어느 팀에서 뛰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커쇼는 지난 시즌 간절히 원했던 우승 반지를 품에 안았다. 다저스는 2017년과 2018년 우승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지난해 32년 만에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커쇼도 데뷔 이후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시즌을 준비하면서도 올해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커쇼는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 예전에는 ‘나와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우리 팀은 정말 좋은 팀이고, 이 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 기쁨”이라고 말했다.

커쇼는 “지난해 우승한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 팀이 다시 특별해질 기회가 있다는 것은 기억해야 한다”며 “올해도 여전히 목표는 우승”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뉴시스